

PEOPLE

2025년 8월 5일 화요일



한전, 베트남 원전사업 협력
경제·사회 연구단 초청 워크숍

한국전력이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한전은 최근 서울에서 베트남 투자기획부 수석 차관 출신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회 연구단을 초청해 원전 협력 워크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원전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한전은 베트남 정부의 신규 원전사업 추진에 발맞춰, 한국의 원전 건설·운영 기술과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최적의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연구단은 K-원자력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성과를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인력 양성, 인허가 체계, 수송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원전 도입 초기 단계의 정책 수립과 실무 적용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신안 취약계층에 성금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신안군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성금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활력이 돌도록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성금 전달 외에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 건강검진, 사회공헌 건강검진,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산하 기자



영광축협, 어르신 삼계탕 나눔
축산물 소비촉진 기대

영광축협은 최근 중부를 맞아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직원,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사랑의 북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삼계탕 100인분, 군서면 나눔 냉장고 삼계탕 기부 120인분 총 220인분의 축산물을 나눔하며 축산업계의 자발적 사회공헌 실천 운동인 나눔 축산운동을 몸소 실천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에 성금 2801만원 전달

“호우피해 시민들께 써달라”…임직원들 자발적 모금
강기정 시장 “따뜻한 나눔 실천 감사…시민에 큰 힘”

전남대학교병원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2801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남대학교병원 호우피해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진 전남대학교병원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금 2801만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작은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전 직원의 마음을 성금에 담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남대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시신 성금은 피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재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지역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중증환자 치료 등 고난도 의료서비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정진 전남대병원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스 제공은 물론 평소에도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 돕기, 재난피해 성금 기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중국 저장성 청소년 국제교류

교류단 33명 초청해 전남 역사·문화 탐방 등 우정·화합 다져

전남도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 쉐진 중학(HANGZHOU XUEJUN HIGH SCHOOL) 고등학생 등 33명을 초청해 오는 9일까지 7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과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

전남도와 저장성 간 청소년 교류는 199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2회, 127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전남 고등학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중국 고등학생을 초청해 추진하게 됐다.

4일 오전 열린 환영식에서는 저장성 교류단과 전남 고등학생 등 총 68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

기자랑을 진행해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환영식 이후 두 나라 교류단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갯바위, 보성 한국차박물관과 영암 농업박물관 등을 방문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고,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강화해 전남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 쉐진 중학 고등학생 등 33명을 초청해 오는 9일까지 7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과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

저장성 청소년 교류단은 6일 서울로 이동해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인사동 등을 탐방하며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공존

하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고 9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청년 400명 ‘일경험’ 스타트…예비교육 실시

실무 중심 직무·취업역량 강화…드림청년 채용 기업에 특전 제공

광주시는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의 18기 일경험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제18기 드림청년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청에서 열린 ‘드림만남의 날’에 참여한 청년 1700여 명 가운데 상담·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00명이다.

광주시는 이달 1일에 이어 4, 5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시청에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참여청년들의 직무 적응력과 사회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첫날에는 강정 탐색과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네트워킹 형성과 자기이해를 돕는 교육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자기개발 및 시간관리, 직장 내 예절 및 소통법, 스트레스 관리법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이 이뤄지고, 마지막 날에는 스피치 능력 강화 및 노무 관련 법률 교육이 진행된다.

이들은 연말까지 최대 5개월 동안 매칭된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주 25시간 또는 40시간을 근무,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일경험 후 채용이 이뤄질 경우 참여기업에는 연 최대 240만원의 특전(인센티브)이 지급돼 기업의



청년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 선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동구복싱단, 경찰청장기 복싱대회 ‘선전’

신범호·김지웅 금메달…유기현·한영훈 은메달

광주 직장운동경기부 동구복싱단 소속 선수들이 “2025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따냈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 경북 영주시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신범호(-64kg)와 김지웅(+91kg)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기현(-69kg), 한영훈(-64kg)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범호는 2023년 국가대표선발대회 3위, 실업복싱협회전국대회 1위, 지난해 대한복싱협회 전국대회 2위에 이름을 올린 실력자다.

김지웅은 2023년 전국체육대회 3위, 지난해 파리올림픽평가대회 3위, 대통령배전국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2위를 차지했다.

한영훈은 제100·103·104회 전국체육대회 1위, 지난해 국제올림픽대표선발전 2위, 전국중별 선수권전국대회 및 54회 대통령배 대회 3위에 올랐다.

유기현은 2019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2위, 2022년 전국실업복싱선수권 3위, 2024년 전국체육복싱선수권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8월 중에 열리는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도 참가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유기현 한영훈 신범호 김지웅 선수.

임택 동구청장은 “선수들이 금빛·은빛 낭보를 전해준 선수단에 동구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려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2020년 1월 24년 만에 재창단된 동구복싱단은 현재까지 금메달 6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한 바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함께하는 사랑밭 광주지부, 월산동에 식료품 기탁 함께하는 사랑밭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 남구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역내 저소득 가정 및 독거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식료품 30박스를 조영신 월산동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남구



정철원 군수, 8월 정례조회서 시원한 음료로 공직자 격려 정철원 담양군수가 최근 군청 민양정실에서 열린 8월 정례조회에서 집중호우 시 비상근무·피해조사·복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직접 시원한 음료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로 더위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담양군